

12 월 선교소식

받은편지함



Andrew Park <tcbc.park@gmail.com>

오후 9:19
(0 분 전)

나에게

12 월 선교소식

Christmas Njema(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에 또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려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 모든 식구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원하며 12 월 선교 소식 나눕니다.

I. 탕가 신학교 소식

지난 11 월 23 일 제 18 회 졸업식을 갖고 지금은 모든 신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신입생 모집의 일로 모두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목회자는 신학을 해야 한다'는 탄자니아 정부의 시책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신학생 모집은 쉬워졌으나 반대로 신설된 사명자들을 뽑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명자들을 입학시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1. 학생들 소식

리빙 스톤 학교 역시 2018 년 모든 학사를 마치고 약 5 주간의 긴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1 월 7 일 개학을 하게되며 스텝들은 1 월 2 일 새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2. 건축 소식

방학 기간이지만 중학생들을 위한 과학 실험실 신축으로 건축 담당 부서는 바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실험실을 중학교 국가시험에 함께 사용하고 임시 실험실을 이용해 연습을 했으나 내년 2 사분기 (2quarter)부터는 각기 따로 실험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3. 교사들 이동 소식

탄자니아는 해마다 수시로 국립학교 교사 발령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고없이 정부학교로 이동하는 교사들로 인하여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 가능성이 있는 젊은 교사들은 학교 이사회의 결정으로 2019년도 계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안정적인 교사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III. 지역교회 건축 소식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올해도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셨습니다. 완공된 교회들은 탕가도에 있는 마굴라 교회,사구라 교회,킬라플라 교회,키움바 교회, 다른 도에 있는 음베야 교회,마사시 교회 등 6개의 교회입니다. 그 밖에 탕가도 우리 무헤자군에 위치한 키창가니 교회,7KM 교회, 미브모니 교회등 3개교회는 내년 초에 완공 목표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부지가 확정되고 내년 초부터 건축이 시작될 다른 한 곳의 교회도 다른 교회를 건축 중인 일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V. 박선교사 부부 한국방문 소식

지난 12월 7일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는 날부터 갑자기 추워진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는 아프리카 적도를 넘어온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사역지의 덥고 습한 날씨를 불평한 보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1. 가족 병문안

림프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 장모님(82세)을 방문하여 위로 드리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도 따라하시며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조만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기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주세요.

2. 대전 카이스트 (KAIST) 대학 방문

다음 주 수요일(12월 19일)에 대전을 방문합니다. 목적은 대전에 주재하는 탄자니아 선교회와의 모임과 내년에 제 1회로 리빙 스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학생들의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의 입학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2명 정도의 학생을 KAIST에 지원하도록 하는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입학담당 교수님과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 해주시는 분들과의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선교사, NGO, 그밖의 단체)은 새로 시행하는 탄자니아 정부의 외국인 정책으로 인하여 큰 숙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 하시니 나도 일 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처럼 우리들도 모든 앞 일은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일 하려합니다. 탄자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V. 동역 선교사 소식

고태일 선교사님 부부는 지금 사역지에 계시지만 한국에서 미군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12월 19일 한국으로 출국 하게됩니다. 저희들은 12월 25일 밤에 출국하여 27일 사역지에 도착 하게됩니다.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VI.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2. 리빙 스톤의 새로운 교사들 학교적응을 위하여.
3. 탕가 신학교와 리빙 스톤 학교의 2019 년도 학사 진행을 위하여.
4.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5. 병환중에 계시는 김은래 선교사 어머니를 위하여.